

경기 반월중학교 국어 교사 최지혜

# 먼 곳에서 온 이웃

『버사』

표명희 장편소설





## 책 소개

주인공 베샤의 가족은 내전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왔으나 출국장에서 한 달이 넘게 체류 중이다.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공항은 매끈하고 깨끗한 곳이지만 한편으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값을 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유와 시리얼만으로 여섯 식구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처지 속에서 부모인 아델과 하만의 다툼은 점차 심해진다. 이런 동생들은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남들이 버리고 간 물건을 주워 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베샤는 내전 중 겪은 상처로 실어증에 걸렸으나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꿈꾸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에게 공항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진우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 이후 조금씩 마음을 열어 간다. 아델과 하만은 베샤가 고국에서 당한 끔찍한 사연을 언론에 공개하면서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진우는 베샤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헤아려 용기를 불어넣는다.

베샤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전쟁의 피해자로서, 난민으로서 여러 겹의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 읽던 책과 자신을 지지해 준 친아버지, 혁명과 자유에 대해 가르쳐 준 재스민 선생님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진우가 함께한다. 베샤는 갈등과 폭력을 딛고 사랑에서 출발하는 혁명을 꿈꾸기로 한다.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무지한 대상에 대해서는 편견이 생기기 쉽다.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역시 무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 낯선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베샤』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무슬림 여성 난민인 베샤가 겪는 억압과 차별, 그리고 성장과 꿈을 펼쳐 보인다. 학생들은 베샤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찰할 수 있다.



## 수업의 초점

### 1. 통일성을 갖춘 서평 쓰기

학생들과 장편소설 단행본을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흥미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한다. 간단한 양식의 독서 일지를 기록한 후 모둠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독서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활동을 고안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책 읽기는 혼자 할 때보다 더욱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책 읽기 시간이 끝난 후에는 보석 맵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보석 맵은 협력 수업 방법으로,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활동에서 도출한 핵심어를 중심에 두고 학생들은 소설 속 결정적 장면을 세 가지 고른다.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장면을 선택하는 활동은 서평 쓰기를 위한 기반이 된다.

장편소설 서평 쓰기 활동에서 자주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어를 중심에 둔 장면 선택에 기초해 서평을 쓴다면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 문제 인식하기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시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소설을 읽기 전에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게 기록한 후 독서를 시작한다. 사전에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작품을 읽은 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독서 과정에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서평 쓰기를 통해 사회 문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피면서 능동적인 독자로서 작품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추가 활동에서는 창작자의 위치에서 본다. 난민을 화자로 하여 시를 써 보는 것이다. 교사는 창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신문 기사,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돋고, 유사한 내용을 다룬 시를 읽기 자료로 준비해 둘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독서 과정 전반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관심과 성찰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 3.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비고
1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 그림을 통한 내용 상상하기 '난민' 이슈에 대한 대조표 작성하기	
2~6	읽기 중 활동	모듈별 대화를 통한 책 읽기	
7	읽기 후 활동	보석 맵을 활용한 핵심 내용 파악하기	
8		키워드와 결정적 장면 탐구하기	
9		서평 쓰기	
10	평가	구술 평가	
11	추가 활동	사회적 문제를 다룬 시 쓰기	

## ☰ 차시별 수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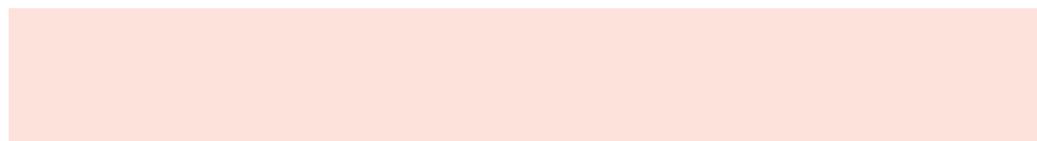
###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내용 상상하기, 대조표 작성하기

#### 활동 1 제목과 표지 그림을 통한 내용 상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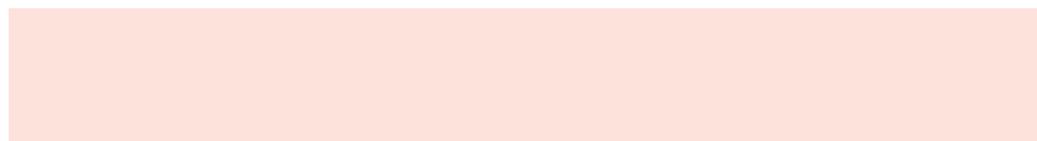
##### 1.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 2. 표지를 보고 소설의 내용을 추론해 보자.

— 공항, 히잡을 두른 여성, 여성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 등에 주목하여 추론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 2 '난민' 이슈에 대한 대조표 작성하기

##### 1. 『벼샤』는 난민 수용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소설을 읽기 전에 난민 수용 찬반 의견에는 각각 어떤 근거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 대조표 작성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에 앞서 책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뉴스, 신문 기사 등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난민 수용 찬성	난민 수용 반대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 ●●● 읽기 중 활동

| 2차시~6차시 | 모둠별 대화를 통한 책 읽기

#### 활동 1 모둠별 대화를 통한 책 읽기

- 해당 차시에 읽은 내용과 읽으며 든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수업 종료 15분 전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교사가 제시한 최소 분량 범위까지 읽은 모둠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다.
- 소설 읽기 활동에서 중간에 대화를 나누는 활동은 해석 공동체의 목표 공유, 읽기 과정 점검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읽기 부진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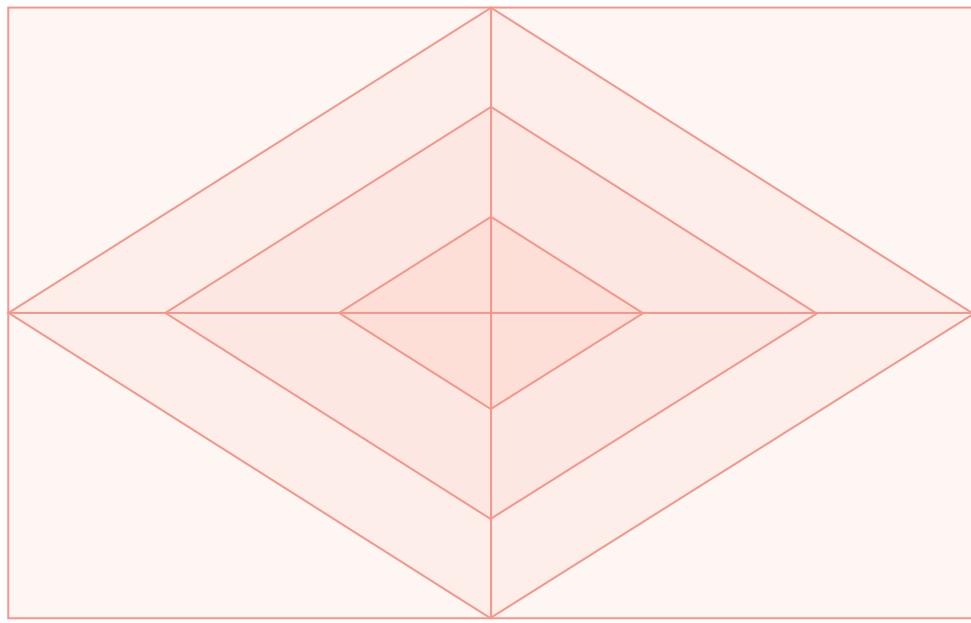
▶ 『버사』 함께 읽기		년	월	일	교시
읽기 점검표	<input type="checkbox"/> 최소 분량까지 읽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읽기 중 집중이 잘 되었는가? (그 이유: _____) <input type="checkbox"/>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해당 부분: _____)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					
모둠 대화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					

### ●●● 읽기 후 활동

| 7차시~9차시 | 파악하기, 탐구하기

#### 활동 1 보석 맵을 활용한 핵심 내용 파악하기

- B4 용지를 활용해 앉은 자리에서 접어서 만드는 방법을 활용한다.
  - ① 종이를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는다.
  - ② 접힌 가운데 모서리의 양옆 모서리가 직선의 양 끝이 되도록 접고, 그 직선에 맞추어 가운데 쪽에서 두 번 더 접는다.
  - ③ 접은 종이를 펼치면 보석이 겹친 모양의 보석 맵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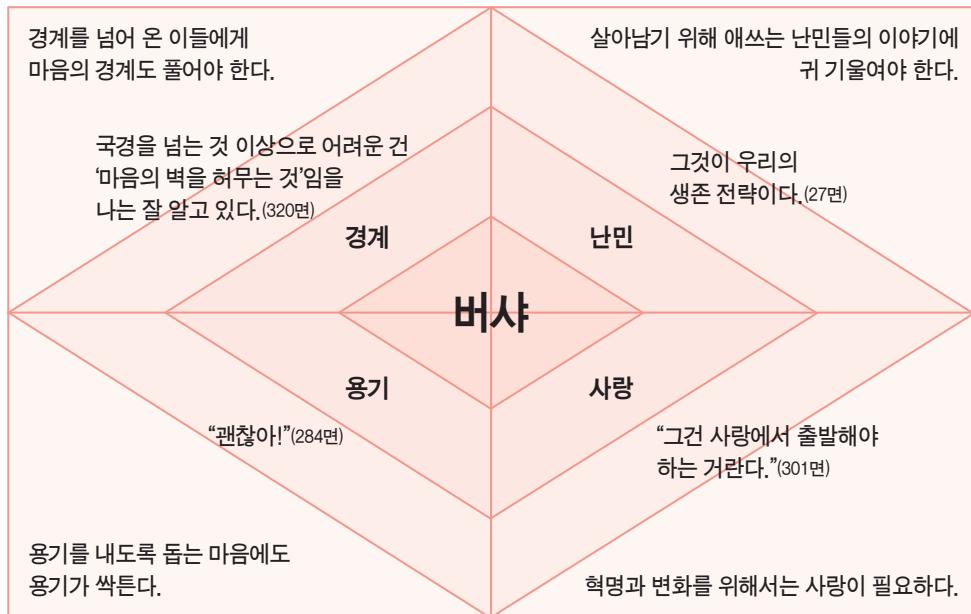


— 모둠원 네 사람이 한 영역씩 맡아 기록을 시작한다.

- ① 가장 가운데 칸에는 소설의 제목을 적는다.
- ② 다음 빈칸에는 자신이 생각한 핵심어를 적는다.
- ③ 다음 빈칸에는 핵심 문장을 적는다.
- ④ 다음 빈칸에는 주제를 적는다.

— 각자 영역을 고정하여 쓸 수도 있고, 한 칸씩 쓸 때마다 종이를 90도로 돌려 빈칸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시)



## 활동2 키워드와 결정적 장면 탐구하기

- 이전 차시 활동에서 찾은 핵심어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 핵심어 및 주제와 관련된 주요 장면을 세 가지 선정하여 기록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의 연관성과 중요도를 파악하여 피드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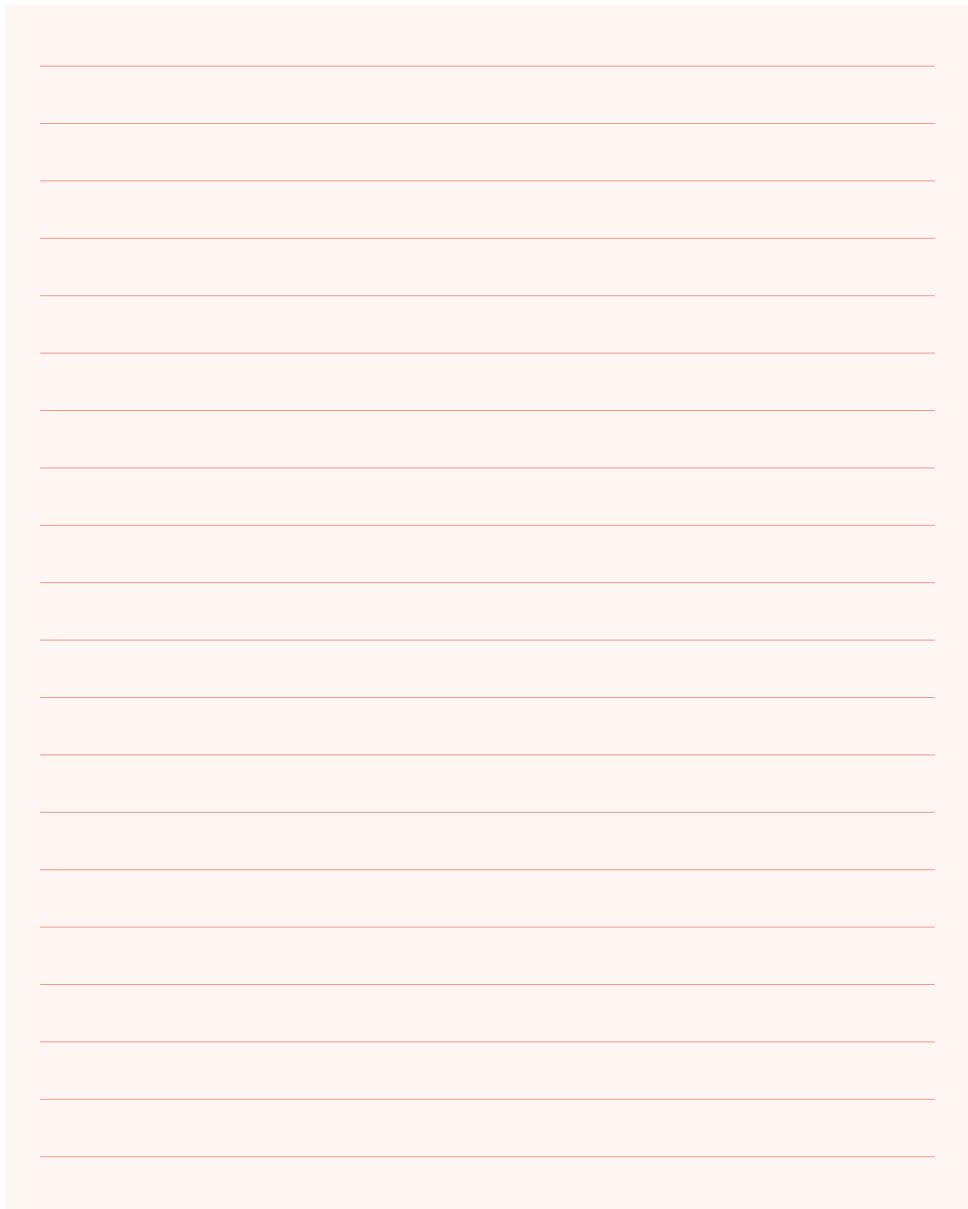
핵심어	
주제(작가가 전하고 싶은 바)	
장면 1 + 고른 이유	장면) 고른 이유)
장면 2 + 고른 이유	장면) 고른 이유)
장면 3 + 고른 이유	장면) 고른 이유)

(예시)

핵심어	용기
주제(작가가 전하고 싶은 바)	난민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장면 1 + 고른 이유	장면) 버샤가 '불행의 아이콘'이 되는 인터뷰를 거절한 이후 숙소를 빠져나와 있는 장면 (188면) 고른 이유) 하만과 아델은 공항에 취재 온 기자들에게 전쟁 중 버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린다. 이후 취재진은 버샤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버샤는 더 이상 불행의 아이콘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후 숙소에 머물기 불편해진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바깥으로 나와 걷는다. 용기를 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냉랭한 분위기라도 이를 감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장면 2 + 고른 이유	장면) 버샤가 재스민 선생님을 떠올리는 장면 (124~125면) 고른 이유) 버샤가 역사와 여성 해방에 관심이 있는 자신을 독려했던 재스민 선생님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그녀는 내게 꿈이란 걸 갖게 해 준 최초의 선생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버샤의 당당함과 미래 지향적인 태도의 근간에는 재스민 선생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면 3 + 고른 이유	장면) 버샤가 녹화 버튼을 누르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 (320~321면) 고른 이유) 버샤가 그동안 감춰 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 장면이다. 여러 번 다시 촬영하는 데서 진지함이 느껴지고 베일을 내리는 데서 그동안의 억압을 벗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됨이 드러난다. 아이샤의 존재와 버샤의 진실을 밝히는 작품의 하이라이트.

### 활동 3 서평 쓰기

- 이전 차시 활동을 바탕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도록 한다.
-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제, 작품과 연관된 자기 경험, 소설을 읽고 느낀 점 등을 교사의 수업 의도에 따라 추가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의 초고를 읽고 통일성이 있는지, 작품의 장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타당성 있게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드백한다.



## | 10차시 | 평가하기

마지막 차시에는 구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을 공지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두 가지 질문에 각각 1분 내외로 답변하도록 한다. 답변의 근거는 반드시 소설 안에서 찾도록 한다.

### 질문 목록

- 버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을 자세히 말해 보자.
- 버사의 결정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선택이 달랐다면 어땠을지 말해 보자.
- 버사의 인생에서 위기나 어려움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해 보자.
- 『버사』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와 그 근거를 소설에서 찾아 말해 보자.
- 『버사』를 읽은 후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를 생각해서 말해 보자.

## | 11차시 | 추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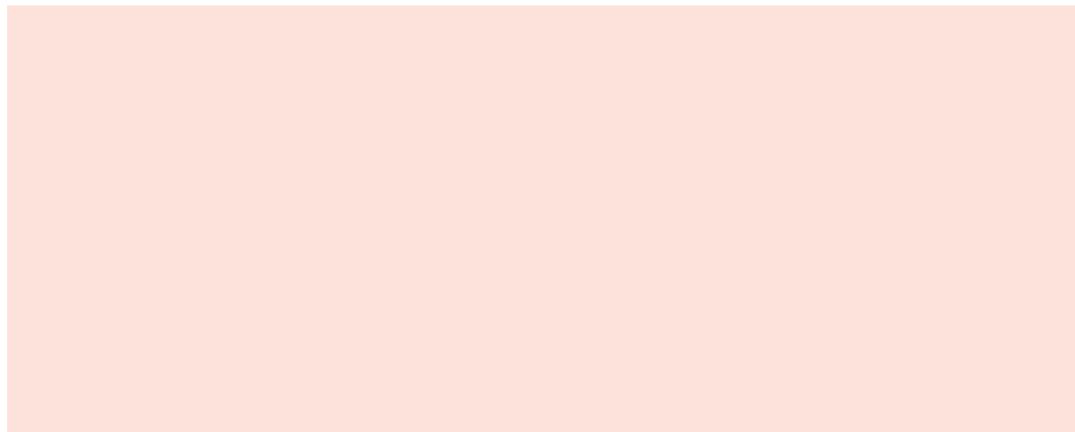
### (활동 1) 사회적 문제를 다룬 시 쓰기

- 작품 속 인물을 화자로 시를 써 보는 활동이다.
- 난민과 관련한 다른 문제에 대해 쓰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 완성한 작품은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고, 학생들이 댓글을 통해 상호 피드백하도록 한다.

### [시적 상황 구성하기]

화자가 처한 상황	
시에 담고자 하는 정서	

### [시 창작하기]





## 엮어 읽기

### 『어느 날 난민』 표명희 장편소설 (창비 2018)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을 함께 읽어 보자. 표명희 작가가 난민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작품으로 『어느 날 난민』이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인천 공항 근처의 섬이다. 이제 막 문을 연 난민 캠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국적이 없는 아이, 명예 살인의 위기에 놓였던 여성, 중국 공안을 피해 사회적 난민이 된 이들……. 등장하는 인물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먼 나라에서 온 이들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이들의 사연을 함께 담아냈다. 어떤 이유로든 기존 체제에서 밀려난 이들도 난민이라면, ‘어느 날’, ‘누구라도’ 난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내 안의 차별과 소외를 꺼내어 이웃과 연대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책이다.

### 『내 이름은 음비』 음비 토나·박진숙 지음 (이후 2013)

버사의 가족들이 공항에 머무는 이유는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국경을 넘는 위험을 수차례 감수한다고 해도 난민들 앞에는 ‘난민 인정’이라는 공고한 벽이 있다. 소설인 『버사』와 달리 『내 이름은 음비』는 논픽션으로 실제 난민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은 콩고에서 온 음비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그렸다. 그 6년의 시간 동안 음비는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면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목격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용기를 펼치는 음비의 모습은 독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한다. ‘난민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사회는 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읽기 좋다.